

가을의 서점가, 음악향기로 그윽

음악을 읽는 다양한 책들 선보여... 대중문화의 주요 담론 담아내

얼마 전 출간된 대중음악서의 저자는 그 책의 머리말에서 “음악은 통계자료가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컬렉션”이라는 주장을 폈다. 분석력이나 비평력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최근 나오는 음악관련서들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은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이 책들은 단지 정보를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들의 음악 경향에 대해 그들을 지배하는, 혹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현상으로 다루기도 한다.

음악을 듣기 위한 준비

예술 분야의 신간코너에서는 TV 연예프로그램에서나 들었을 법한 ‘댄스음악’, ‘힙-힙’, ‘모던 록’ 등을 제목으로 한 책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춰보면, 웬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그뿐인가. 디스코그래피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정보는 하나의 음악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독자들을 겁나게 할 지경이다.

이번에 출간된 《입 닥치고 춤이나 춰》(신현준 외, 한나래)는 제목만 믿고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 이미 《일트 문화와 록 음악 1·2》에서 록 음악이 갖는 대안문화의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대중음악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천착했던 저자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도 비슷한 관점으로 살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90년대의 문화적 형세가 테크놀로지와의 친화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말로 서론을 열고 있는데, 마셜 맥루한의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이단적 선언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에 따라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이상적으로’ 수용된다면 비인격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에토스가 우위를 점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이 테크놀로지는 ‘비인격성’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대중음악과는 달리 ‘스타의 퍼스널리티’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악전문출판사 쏠에서 펴낸 《힙-힙 파라다이스》(이효영 외) 역시 힙합을 다루고 그 시각이 자못 진지하다. 신세대 문화를 통

**이즈음 서점가에는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섭렵한 책들이
음악애호가들을 손짓하고
있다. ‘댄스음악’, ‘힙합’,
‘모던 록’에서 클래식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수정처럼 맑은 피아노의 성녀
하스킬의 어린시절 모습.
그녀는 18살에 불치병에 걸려
평생 곱추로 지내야 했다.
· 쇼크록을 재현한 듯 등장한
미릴린 맨슨의 기괴한 포즈(오른쪽).



칭하는 문화현상으로까지 일컬어지는 힙합은 잘 알려진 것처럼 매우 사회적인 음악이다. 그래피티 아트, 브레이크 댄싱, 디제잉과 함께 힙합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랩은 할렘가 흑인들의 사회적인 불만을 중얼거리는 듯한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 책은 힙합이라는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와 같은 유래와 진화, 타 장르와 혼합된 여러 유형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중음악에 대한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양의 정보다. 대표적인 형태가 음반 가이드인데, 대중음악을 현대를 읽는 하나의 문화적 좌표로 보고 있는 앞서의 두 책도 예외는 아니다. 《입 닥치고 춤이나 춰》에서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발생과 전개과정, 하우스·에이드 하우스·테크노·앰비언트·트립합·인더스트리얼 등의 여러 장르를 두루 살펴면서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의 삶과 그들의 작품,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하는 소사전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힙-힙 파라다이스》도 초기 힙합 아티스트부터 80년대, 90년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의 약력과 작품을 소개하고, 꼭 들어야 할 음반 86개를 선정하여 리뷰를 덧붙였다. 용어해설과 주요 레이블, 주요 아티스트 팬클럽의 주소까지 소개했는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전문지 《SOURCE》 매거진의 정보들도 접할 수 있다.

아예 음반이나 연주자만을 모아놓은 책들도 많다. 《모던 록 음반 가이드 319선》(조성

진, 창공사), 《불멸의 재즈명반 102선》(이종학, 주변인의길)은 해당 장르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음반만을 소개한 책이다. 90년대 음악이 탈장르·무정형성·다양성의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모던 록 음반 가이드 319선》은 블루스, 펑크, 테크노, 인더스트리얼, 댄스비트, 레게 등이 혼합된 90년대의 대표적인 음반을 장르별로 리뷰했다.

생소한 비주류 음악도 소개

비교적 잘 알려진 얼터너티브·펑크·브릿팝은 물론 아직까지 생소한 루츠·컴필레이션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음악적 장르라기 보다는 비타협적이고 비주류의 음악,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공동체의 태도를 의미하는 하드코어다 다뤄 눈길을 끈다. 이 책에 등장한 319개의 음반 가운데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음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 문화수용의 달라진 모습도 보여 준다.

《불멸의 재즈명반 102선》은 한때 “재즈를 모르면 문화를 모른다”는 기이한 열풍까지 낳았던 재즈 분야의 명반을 엄선했다. 재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재즈의 질적 전환을 이뤘던 ‘몽트로 재즈 페스티벌 시리즈’나 재즈계에 전설적 거장으로 기록된 ‘마일즈 데이비스’ 음반을 세밀하게 설명했다. 특히 이 책은 주제별 분류가 재미있는데,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도 고집스레 자신의 음

악세계를 추구하는 연주자들의 갈등과 묘한 조화를 설명한 《연주들끼리의 격돌 시리즈》, 라이브 음반 가운데 명반을 뽑은 《라이브 연주자의 진수를 듣는다》가 눈에 띈다.

현대 클래식 음악가를 소개한 《전설 속의 거장》(황금가지)은 20세기의 연주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지만, 저자 조희창 씨가 월간 《객석》의 기자로 있으면서 직접 만나보았던 게오르그 솔티 등의 육성도 담겨 있다. 음반 소개보다 음악가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른 책과는 성격이 다른데, 개인적 삶을 통해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의 세계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치에 쫓기며 그에 대항했던 푸르트벵글러,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세 포경화증’으로 곱추가 되어버린 클라라 하스킬 등 시대의 흔적과 개인적인 고뇌를 동시에 안고 있었기에 그들의 음악에서는 독특한 결이 느껴진다. 음악가들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함께 저마다 개성 있는 음악적 태도와 철학도 엿볼 수 있다.

요즘 음악관련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은 전문출판의 활성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쏠 등 음악전문출판사의 등장, 대중문화를 현재의 문화지형을 읽는 중요한 담론으로 생각하는 한나래의 《팝 컬처》, 창공사의 《창공 대중문화 총서》 등 시리즈물이 젊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질적·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현주 기자